

용서의 힘

The Power of Forgiveness

마태복음 18:21-3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8월 19일 설교

²¹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²²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²³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²⁴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²⁵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²⁶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²⁷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²⁸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²⁹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³⁰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³¹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³²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³³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³⁴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³⁵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종이 받은 것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종들하고 결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채무관계 결산입니다. 종들에게 꾸준 돈이 있는데 그걸 돌려받겠다 한 거지요. 결산을 시작하자 하나가 인도되어 들어왔는데 빚이 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지금 시세로 약 백만 달러쯤 됩니다. 만 달란트는 백억 달러입니다. 백억 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백억 불이었습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싶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으라고 데리고 왔는데 빈손입니다. 돈이 없답니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저와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것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 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요트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가진 걸 다 팔면 거지가 될 판입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팔라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팔고 하던 시절입니다. 이제 온 식구가 다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종이 엎드렸습니다. 주인에게 절을 하면서 빌었습니다. “크게 한 번 봐 주옵소서. 다 갚겠나이다.” 직접화법입니다. 강조하시는 거지요. 원문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나오는 “오래 참는다”는 그 말입니다. “오래” 또는 “크게” 참는 겁니다. “크게 한 번 봐 주시면,” 쉽게 말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하는 말이지요. 자, 만 달란트라 했습니다. 일을 해 갚을 경우 한 달란트를 갚는데 스무 해가 걸립니다. 만 달란트는요? 이십만 년을 일해야 가능하지요. 대가족이라 식구가 열 명이라면 이만 년씩 하면 되겠지요. 구석기시대 초기부터 일을 했다면 지금쯤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무이자일 경우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보니 안됐습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가진 건 없습니다. 온 식구가 노예로 팔려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다 갚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더 안됐지요. 그래서 그 종을 놓아 보냈습니다. 놓아 보냈다는 말은 빚을 못 갚으면 그대로 감옥에 넣거나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내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꼭 갚아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빚을 아예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감옥에도 안 넣고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빚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인이 보니 안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냥 “주인이” 해도 될 걸 “그 종의 주인이” 하고 길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으려 했습니다. 안 되면 감옥에라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불쌍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으니 결산이 되긴 된 겁니다.

종이 한 일

종이 나갔습니다. 자유지요? 그런데 탕감 받고 돌아가는 길에 동료로 하나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한테 백 데나리온 빚이 있는 동료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달란트의 육천 분의 일이니 백칠십 불쯤 됩니다. 백 데나리온이

면 만 칠천 불이니 적은 돈은 아니지요. 보자마자 붙들어서 먹살을 쥐고는 말했습니다. “빛을 졌으면 갚아야지!” 이것도 직접화법입니다. 중요하다 말씀이지요.

원문을 보면 이 종이 한 일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나갔다, 만났다, 붙잡았다, 먹살을 쥐었다, 말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세 개는 본사로 되어 있고 두 개는 본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본동사로 표현하지요. 뭐겠습니까? 만났다, 먹살을 쥐었다, 이 두 개가 본동사입니다. 만난 순간은 판단의 순간입니다. 나한테 빛진 동료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도 않고 먹살부터 잡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지요.

동료가 엮드렸습니다. 동료 사이라 절은 안 했지만 엮드려 빌었습니다. “크게 한 번 봐 주면 갚겠네.” 이 종이 아까 주인에게 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저는 “다 갚겠나이다” 했는데 동료는 “다”는 빼고 그냥 “갚겠네” 한 것만 다릅니다. 액수가 달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종이 이 말을 했을 때 감옥에 안 넣었을 뿐 아니라 아예 빛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안 그랬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했는데 원문은 “하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동료가 크게 한 번 봐 달라 빌었지만 저는 그렇게 봐주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먹살을 진 손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무슨 감정입니까? 분노지요. 빛을 못 받아 성이 났습니다. 빛을 졌으면 갚아야지 하는 말 속에도 담겼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집니다. “이에 가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옥에 가두거늘.” 감옥까지 끌고 가 그 동료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왜요? 빛을 졌으면 갚아야 되니까요. 법대로 한 겁니다. 빛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는 법이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빛을 갚도록” 가두었다 했는데 “빛을 갚을 때까지”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갚고 풀려났다는 말이 아니라, 빛을 갚지 않는 한 거기서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분노

다른 동료들이 이걸 다 보았습니다. 심히 민망했습니다. 괴롭고, 걱정되고, 거북하고, 뭐 그런 마음입니다. “저런 저런!” “이게 야인데!” 하는 마음이지요. 적법하게 한 일이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가만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고했습니다. 원문에 “저희 주인”이라 했으니 다 그 주인의 종들이지요. 어쩌면 이 사람들도 빛을 탕감 받았을 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원문은 “그의 주인”입니다. 전에 그 종이 불쌍해서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빛을 아예 다 탕감해준 바로 그 주인입니다. 불러 말합니다. 직접화법입니다. “악한 종아!” 번역이 좀 신사적이지요? 공동번역은 “몹쓸 종아!” 그랬습니다. 맞지요. “못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그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냥 빛이라 하지 않고 “그 빛”이라 하십니다. 만 달란트라는 말씀이겠지요. 그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처음 탕감해 줄 때는 “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동료들이 보고 민망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보았으니 너도 당연히 네 동료를 불쌍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주인은 그 종이 빌 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늦추어 달라고 빌었는데 아예 빛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가 빌었지만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탕감이 됩니까? 좀 늦추어 주지도 않고 “빛이 있으면 갚아야지” 하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내가 줄 빛이 있고 받을 빛이 있습니다. 줄 빛은 탕감을 받았습시다. 산더미처럼 많은 빛인데, 조금 늦추어주기만 해도 엄청나게 고마울 건데, 그걸 탕감을 받았습시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로 적은 액수를, 탕감해 주어도 별 것 아닐 그런 빛을, 조금 늦추어주지도 않고 법대로 해 버렸습니다. 눈곱만큼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십만 년 고생할 걸 면제받았으면서 몇 달 수고하면 갚을 수 있는 빛을 받아내자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동료의 먹살을 쥐던 그 종의 마음이 이제 주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빛을 다 갚을 때까지 맡겼습니다. 옥졸은 감옥지기가 아닙니다. 원문은 고통을 주는 사람, 고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문초해 자백을 받아내고 벌도 주는 사람입니다. 빛을 진 사람을 고문하는 사람에게 맡겼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라 한 겁니다 (마 5:25, 26).

용서하라

주님이 베푸신 비유입니다. 삶에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 낸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빛을 탕감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주님은 이 비유로 용서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용서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었습니다. “형제가 저한테 죄를 몇 번 지을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스승님한테 감히 주관식 문제를 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보기를 드렸습니다.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탄에는 큰마음 먹고 일곱 번이라 한 겁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눅 17:4). 그런데 여기서 는 그냥 많다는 뜻으로 일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일곱 번이 다 뭐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를 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못된 종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칠칠 사십구, 사백 구십 번 용서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용서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두 가지로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입니다. 액수로 육천 배 차이가 있지만 양의 차이가 아닌 질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둘째는 만과 백의 차이입니다. 만은 백의 백배지만 이것 역시 양의 차이를 통해 질의 차이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비유에 “다” 또는 “모두”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오는데 다 이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을 말할 때 나옵니다. 우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했습니다. 빚이 워낙 많이 닥치는 대로 팔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팔라 하신 것입니다. 그 종은 “다” 갚겠다고 헛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상황을 “다” 고해 바쳤습니다. 배은망덕의 악행이지요. 주인이 그 못된 종을 불러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못된 종을 고문자에게 맡겼는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는 우리 자신과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용서는 그걸 모조리 용서하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러니 만약 용서를 못 받는다 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십만 년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무시무시한 빚입니다.

백 데나리온 빚에 대해서는 “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만 달란트에 비하면 별 것 아닌 빛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 용서하고 다 용서받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다음에 따로 생각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빚지고 갚고 또 빚지고 또 갚고 하기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되풀이하는 게 우리 사이입니다. 일곱 번까지 하고는 용서 할 만큼 했다, “다” 했다, 더는 못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크게 한 번 참아 달라 하는데 싫다,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두 사건이 맞물려 있다 하십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빚진 것과 그 종의 동료가 그 종에게 빚진 것이 서로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구도도 똑같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갚을 빚이 있었다. 갚으라 하기에 갚겠다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하게 보고 아예 다 탕감해 주었다. 그 종이 동료에게 받을 빚이 있었다. 갚으라 했더니 갚겠다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탕감은커녕 기회를 주는 것조차 싫어 감옥에 처넣었다. 구도는 같은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주일 상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상징체계처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하나님에게 달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와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 와 계셔서 우리가 이웃과 맺는 관계를 하나님도 그대로 맺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선지자니라” (마 7:12). 이 황금률도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뭘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웃에게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강조합니다. “나는 네가 빌기에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자비를 베풀었지? 그런데 너는 왜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주인은 다 탕감해 주셨지만 왜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인만큼 큰 자비는 못 베풀어도 적어도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감옥에 처넣지 않고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이 못된 종은 사실 제 무덤을 제가 판 사람입니다.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주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빚 갚게” 해도 되는데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했습니다. 동료가 나에게 진 그 빚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빚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를 내세운 겁니다. 맞지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전에 엄청난 액수를 탕감 받았습니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건데 안 갚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료를 만나 빚은 갚아야지 하는 원리를 내세우는 순간 조금 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내 입으로 취소해 버린 셈입니다.

구원을 내가?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 주니까 주님도 나한테 해 주신 용서를 취소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 아닙니다. 내 구원이 내 공로에 달려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말씀은 그렇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거듭 주신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내 구원 여부가 내가 이웃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기 달려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구절이 앞으로 와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너희 형제끼리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꼭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뜻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우선 종이 주인에게 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거 현실에서 있는 것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뭐 한다고 아무 것도 없는 종한테 담보도 없이 그렇게 많이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주님도 그걸 강조하시려고 달란트만 해도 많은데 그걸 만 배로 더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키우셔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용서가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큰 용서라는 걸 가르치시면서, 그 용서에 비하면 너희 사이에 주고받는 용서라는 건 정말 별 것 아니다, 너희끼리 해 주지 못할 용서가 어디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요소는 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의 태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습시다. 그런데 주님은 그 종이 감사를 했다, 기뻐 뛰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바로 동료의 먹살을 쥐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야기니까 주님 마음이지요. 감사와 기쁨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먹살 잡고 감옥에 처넣고 한 게 말이 되거든요. 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그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조금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먹살부터 질 수 있겠습니까? 까짓것 다 탕감해 준다 해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조금 기다려주지도 않고 감옥에 처넣는 건 방금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드신 겁니다.

용서와 구원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백 데나리온 정도는 눈에도 안 들어올 것입니다. 백 데나리온 때문에 성을 내면서 먹살을 쥐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만 달란트느커녕 한 달란트, 아니 한 데나리온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온 우주가 뒤집히는 경험입니다. 내 인격 전체가 새로워지니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교리가 아니고 내 모든 삶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부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황금률을 오해하고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겁이 나서 용서하려고 애쓸 수도 있겠지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거니까 나도 용서하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죄로 물든 자연인은 아무리 겁 줘도 용서 못 합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혈의 능력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지요, 우리 온 몸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자매의 발을 씻기고 싶은 마음, 곧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살한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백 데나리온도 큰 돈입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한테는 큰 돈 맞습니다. 그걸 탕감해 준다는 것, 아니면 적어도 좀 늦게 갚도록 늦추어 주는 일도 적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일만 달란트의 짐이 사라졌는데, 그 기쁨, 그 감격이 오늘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백 데나리온이 다 됩니까?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아 놓고도 용서 못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시려고 주님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용서의 나라

주인이 빛을 탕감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종은 그대로 감옥에 가거나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남한테 받을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탕감해 주셔서 자유를 얻었는데 주인이 기뻐하실 일에 그 자유를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나한테 빛진 동료를 보는 순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달려가 먹살을 짚 건지 아니면 내가 얻은 자유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뻐할 것인지 내가 선택합니다. 노예는 못 하지만 우리는 자유인이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옳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권수경 목사)